발행 :전의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소식지편집위원회 / 발행일 2019. 09. 10. 주소:세종시 전의면 운주산로 1177 / 전화 044-862-9093 / 팩스 044-862-9093 / hryun5688@daum.net

주민공동체가 만드는 공동체이야기
전의(全義) 마을신문

전의다움

2019. 9

신문 모아보기

2. 인물
4. 농촌중심지활성화
6. 아이들 세상
7. 기관 단체

송재준 세종 경찰서장

금사리쪽빛 주민제안 공모사업

전의도래샘작은도서관

둥구나무공동체

전의 마을신문 전의다움은 전의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소통 창구 입니다.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과정을 주민들이 보고 애향심을 키울 수 있는 전의다움 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의 손으로 만들어 가는 전의면 소식을 알리는 소식지 입니다.

언제든지 주민 여러분의 의견과 제보, 원고를 기다립니다.
마을관련기사 및 이야기 제보: 편집위원회 044-862-9093

○ 발 행 인 : 황우성(추진위원장) 편집위원장 : 윤혜란
○ 편 집 기 자 : 김은미, 김선지, 류정훈, 이미경, 유옥자,

○ 전의홍보관 개관

전의홍보관 건축이 올해 초순부터 시작되어 현재는 마무리에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 전의홍보관은 읍내리 263-4번지 일원으로 전의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다.

전의지역 및 타 지역 방문객 방문에 대비한 홍보 및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한편,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 전의골목문화축제

전의 골목문화축제는 전의면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2018년부터 진행되어 왔다. 2019년 전의골목문화축제는 주민의 자생역량을 키우고, 지속 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주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축제는 2019년 10월 19일~20일(토,일)에 진행되며,
19일 축제 개막식 전 홍보관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기자 김선지

사진작가 오재학
2019년 9월
가을 여정

인물 송재준 세종경찰서장

송재준 세종경찰서장

취임식을 마치고 2-3일지나 고향 방문길에 나섰다. 멀리서 보이는 산 등선이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기억의 저편에서 개구장이 처럼 뛰놀던 기억들이 스쳐간다. 고향의 냄새가 코끝을 찡하게 한다.

'두부 사와라'하는 어머니의 말씀 청국장에 두부 넣고 바글바글 끓는 소리가 귓전에 맴돈다. 초등학교 옆이 집이었던 나는 운동장에 소리없이 소복하게 눈이 쌓인 날이면 그 넓은 운동장은 나만의 캠퍼스가 되었다.

구르기도 하고 신발자국도 남기며 개구지게 뛰놀았던 시절 아무거나 먹어도 맛 있었던 그 시절 지금은 그 맛을 찾아보려 하나 무엇을 먹어도 추억 속의 음식은 추억속에 머문다. 예전 처럼 맛있고 재미있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다시금 내 마음 속 깊은 곳으로 숨었다. -고향을 회상하며 -

취약지역 순찰 및 방범시설 점검

2019년 7월 15일(월) 세종경찰서 대회의실 3층에서 76대 송재준(51) 세종경찰서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세종시 전의면이 고향인 송재준 경찰서장은 전의초등학교 전의중학교 천안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 후 고려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1992년 경찰대 8기로 경찰에 입문했으며 충남지방경찰청 기획예산계장, 인사계장 등을 두루 역임하고 2019년 3월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충남청 경무과장을 거쳐 세종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송재준 경찰서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춰 주어진 역할에 맞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며 무엇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세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며 '서로 배려하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활기찬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재준 세종경찰서장은 '주민과 밀접한 사이버범죄 수사 인력 확충 등에 더욱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또한 경찰 본연의 업무인 범죄 예방과 급변하게 변화하는 범죄발생 환경에 발맞추어 수사 인력을 배치하고 중앙부처가 밀집해 있는 세종시의 특성에 맞게 집회 시위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치안관리에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소견을 밝혔다.

치안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남부경찰서가 생기기 전까지 세종경찰청과 세종경찰서가 연계하여 세종시의 과도기적인 상황에 맞추어 역할 분담하여 효율적인 경찰서 운영을 하겠다고 말했다.

송재준 세종 경찰서장은 평소에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 간 신념이 두텁고 경찰들과 소통 융화가 뛰어난 지휘관으로 명성이 자자하며 자녀는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 송재준 세종 경찰서장의 남다르게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이 마음으로 전달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송재준 세종경찰서장의 따뜻함을 느끼며 인터뷰를 마쳤다.

주민기자 윤혜란

3.1운동 100주년 및 8.15 광복절 74주년 기념 '면민 화합 걷기 대행진'

전의면발전협의회(회장 박관응)가 지난 8월 15일 전의초 일원에서 3.1운동 100주년 및 8.15 광복절 74주년을 기념해 '면민 화합 걷기 대행진'을 개최했다. 걷기코스는 오전 7시 전의초등학교에서 출발해 전의면사무소 뒤를 경유, 서정리 마을회관을 지나 한기레미콘과 전의생활체육공원을 거쳐 전의초등학교로 다시 집결하는 7㎞ 구간이다. 소요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예상되는 거리다.

우천 속에서도 면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만세삼창과 광복절 기념을 되새기며 일본아베 정부 규탄 결의를 했다. 참가자 들에게는 , 도착 후에 추첨을 통해서 전기오토바이, TV, 세탁기, 자전거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졌다. 3대가 함께 걸은 4가족에게 도자기 셋트 식기류를 전달했다. 84세 최고령자도 걷기대회 참가자에게도 상품을 전달했다. 비오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같은 길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며 가족과의 소통과 주민들 서로 간의 소통이 되는 면민 화합 걷기대회는 잘 마쳤다. 내년에는 더 많은 면민이 참께 참석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즐기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

후원자 명단

김윤호 전의종합중기	김민식 신흥농장	박갑수 원창기업
이옥숙 함박골	전의조경수	김말선 홍림 중화요리
이봉주 잉꼬가든	이석환 전의신협	심화섭우리불교조계
김치성 천조	이용길	이기천 충청에너지
김완식 해솔관광	윤정병	박관응회장(국자)
김명철 명도건설	윤석기 전의산업단지	박훈재 힘찬농장
세종시 조경수	강일권	김기달
이희용 삼화페인트	최윤묵 서창산업	안영수 풍년식품
이학수 그린안경원	윤석화	박관응 이장단협의회
박종배 두원농장	정근춘	방용택
정근성 목성농장	임헌완 영신 주식회사	박민수 전의라이온스

정기석의 마을학 개론 6

'마을 시민' 이란 누구인가

결국 문제는 '사람이다. 농촌마을의 문제도 근본적, 궁극적으로는 사람으로 풀어야 한다. 농촌마을의 근본적 병인과 한계는 일단 사람의 절대적 량도 부족하고 사람의 근본적 질도 모자란 다는 점일 것이다.

농촌마을에는 일단 일을 할만한 사람이 별로 없다. 있다 해도 거의 농사기술 전문가 말고는 없다. 농촌마을공동체를 되살리려면 농민, 주민 말고도 시민이 많이 살아야 한다. 마을에 사는 시민, '마을시민'이 많이 내려와 뿌리를 내려야 한다. 마을공동체사업의 핵심 책임주체로서 '마을시민', 즉 마을과 지역의 인재를 마을 안에서, 지역사회의 토대 위에서 적극 발굴.육성해야 한다.

'마을시민(Commune Citizen)'이란 말그대로 마을에 사는 시민이다. "지역공동체적 사회자본, 혁신적 인적자본으로서, 마을 또는 지역사회공동체 사업에서 주체적 역할을 감당하는, 농촌 및 지역주민"을 뜻한다. 가령 마을공동체사업의 책임주체인'마을기업'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역량을 갖춘 책임있는 사업주체 역할과 책무를 감당할만한 유능한 인력이다. 마을에서 스스로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자각하고 책임지는 인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무엇보다 마을시민이 살지 않는 마을은 마을답게 느껴지지 않는다. 선뜻 마을이라 부르기 어색하고 주저된다. 농부들만 모여서 농사만 짓고 사는 곳은 마을이라기보다 사실 농장에 가까운 것 아닌가. 우리 농촌의 현실은 농부들이 먹고 살려고 농사 일에만 매달리는 힘겹고 우울한 공간은 아니던가.

모름지기 마을이라면 농부는 물론 농부가 육체를 다치면 고쳐줄 의사, 농부가 마음이 아프면 달래줄 성직자, 농부가 아이를 낳으면 보살피고 가르칠 교사, 농부의 고민을 함께 풀어줄 연구원, 농부가 사는 마을을 아름답게 표현할 문화예술인이 함께 살아야 마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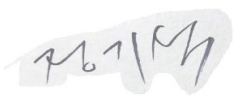
또 농부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세상에 대신 들려줄 작가, 농부의 삶과 운명을 고쳐줄 사회운동가, 농부의 소득을 높여주고 일자리를 만들어 줄 기업가, 농부의 집을 짓고 농기계를 고쳐줄 기술자, 농부의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줄 상인도 한 데 어우러져야 한다. 그래야 마을은 공동체도 되고 사회도 되고 우주 같은 대동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금 당장, 농촌마을과 지역사회의 공동체를 지키고 공동체사업을 꾸려갈 만한 마을시민을 기르는 새로운 학교, 혁신적인 대안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른바'지역사회에서 능히 먹고 사는 생활기술을 가르치는 직업전문학교'라면 좋을 것이다.

마땅히 그 학교는 출세를 위해 시험이나 자격을 대비하는 학원같은 곳이 아니라 '인적 사회적자본 발전소' 정도의 사회적 책무와 기능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그 학교에서 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 등 농촌마을공동체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역량과 품성을 갖춘 다양한'마을시민'들이 학습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인재들이 마을로 들어와 자신도 먹고 살고 마을과 지역도 먹여 살릴 수 있다.



▶ 정기석:마을연구소(Commune Lab) 소장, 詩人
마을을 먹여 살리는 마을기업/ 마을시민으로 사는 법/ 사람 사는 대안마을/ 농부의 나라/ 농촌마을공동체를 살리는 100가지 방법/ 행복사회 유럽/ 24인의 마을주의자/ 귀농의 대전환/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마을학개론/ 고고인류학개론 개정증보판(시집) 등 지음. tourmai@hanmail.net

농민과 면민이 함께하는 세종전의농협

❑ 조합원 대상 무인 항공 방제 실시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은 8월1일부터 8월2일까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무인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다. 이번 방제에서는 드론 10대를 투입하여 전의, 소정, 전동면 100여 농가 138ha 논을 대상으로 무인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다. 방제비 50%는 농협에서 나머지는 농가 부담으로 조합원 영농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많은 조합원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전의면에서 5만여평의 벼농사를 하는 육송권씨(62. 전의면 신방리)는 "무더위로 농약 살포에 걱정이 많았는데 농협에서 무인 항공 방제를 해주어 벼농사 짓기가 너무 편해졌다"고 말했다. 고진국 조합장은 "올해 처음으로 무인 항공 방제를 실시했는데 호응이 너무 좋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하여 조합원들의 인력난 해소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더욱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 사업추진 전략 회의

세종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은 8월 21일 임원,영농회장,대의원,작목반장 100여명을 모시고 2019년 하반기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였다. 호서대학교 허철무 교수의 진행으로 컨테이너 팜에 대한 설명 및 아이티빌리지 이태석이사의 진행으로 커넥트 팜(온라인 로컬푸드몰)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 세종전의농협 조합원 한방 무료 진료 실시

세종 전의농협(조합장 고진국)은 7월30일부터 8월2일까지 농협 복지관 2층에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한방진료 행사를 개최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진료는 대전대 한의학과 학생과 지도교수 30여명이 참여해 500여명의 조합원과 주민들을 진찰한 후 침·뜸·부항시술을 해주고 약제를 조제해줬다.

세종 전의농협은 지난 2014년부터 대전대 한의대생들과 `한방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조합원들이 진료를 받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고진국 조합장은 "나흘 동안 의료 봉사를 해준 대전대 한의대생들께 고맙다는 말을 전하면서 이번 한방 무료 진료를 통해 조합원들의 건강한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기자 류정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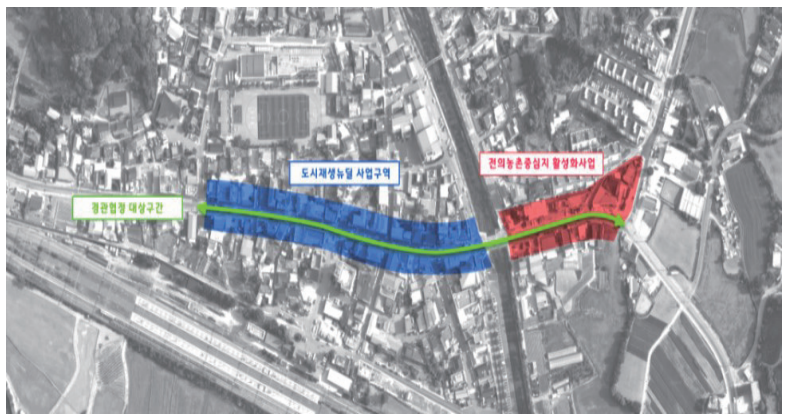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경관협정

전의다움 8월호 2면 인물면에 오희영 교수(상명대학교 환경조경학과)이 자문하고 있는 경관협정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었다. 경관협정을 다시 간략히 설명하자면 “우리가 만드는 우리 동네 약속”을 정해 협정서를 작성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종시로부터 인가를 받는 절차이다.

전의면에서 경관협정이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전의면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두 개가 진행되고 있고, 두 사업 모두 경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 내용을 고려한 전의면 경관협정 대상지는 전의면 운주산로(읍내리, 도시 재생뉴딜)와 동신길(동교리,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도로 가로경관이다.

전의교를 중심으로 양옆으로 나뉘는 두 사업 대상지는 사업 종류는 다르지만, 공간적·공동체적 측면에서 비전을 공유하고 근본적 의도(Theme)를 함께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하나의 경관협정 체결과 운영위원회 운영을 계획 중이다.



거부감 없는 주민주도의 경관협정을 끌어내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친 행정-전문가-민간기업 간 기획 회의를 진행하여, 2019년 하반기 세부 진행순서를 결정하였다. 첫 발걸음으로 사업대상지인 읍내리와 동교리의 8개 행정리 이장님을 2019년 8월 28일 대면하여 주민참여 독려 방법을 논의하였다.

향후 일정으로는 도로 양옆 건물 주민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경관협정 특성상 주민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안내는 추후 현수막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 주민제안공모사업

금사리 쪽빛팀

전의면 주민이 주관하는 주민제안공모사업 중 ‘금사리 쪽빛팀(이하, 쪽빛팀)’은 2019년 8월 9일, 전의향교에서 쪽빛염색체험을 진행하였다.

전의면 근교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금사리 이야기, 전의향교 이야기, 쪽빛 이야기로 흥미를 유발한 후 직접 쪽빛 염색 체험을 진행했다. 금사리는 남정 박노수의 고향으로 쪽빛 남(藍)을 호(號)로 사용하고, 그림에도 표현될 정도로 쪽빛을 사랑하는 화백이었다.

팀명은 금사리를 대표하는 색깔인 ‘쪽빛’ 단어를 사용하여 ‘금사리 쪽빛팀’으로 칭 하였다.

쪽빛팀은 쪽빛 염색체험 외에도 명절과 절기를 중심으로 음식체험을 기획하고 있다. 향후 11월 가족을 대상으로 김치 담그기(김장)를 계획하고 있다.

도자기 메이딩

다국적전통도자기메이딩 팀은 2019년 7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전의느티나무공방에서 수업을 진행해 8월 26일 공식적으로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다.

마지막 수업에서는 복숭아 모양 목걸이를 만들고, 지난 수업에서 작업한 목걸이 팬던트에 끈을 매다는 작업을 하였다.

공식적인 수업 이후에도 화분만들기 등 추가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중 일부 도자기는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될 ‘전의골목축제’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전의면 지역상품 제작까지 도전할 계획이다.

주민기자 김선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전의면 역사교실

그 간 '전의면 역사교실'은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진행하는 문화교육 중간에 일회성 교양 수업으로 총 4회 진행되었다. 마지막 5차 수업은 전의면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의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전의초등학교 선생님 중에는 전의지역 주민도 있지만, 외지에서 전근 온 선생님도 있다.

또한, 전의면에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개미고개, 전의면 유래비, 한국전쟁과 같은 지역 역사를 잘 알고 있기는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의초등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8월 28일 진행한 전의면 역사교실은 전의역사 지식이 선생님에게서 학생에게로 확산할 수 가능성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

추후 전의초등학생이 전의역사를 직접 들을 수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 전의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결과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컨설팅을 정기석 소장(마을연구소)이 진행하였다. 2019년 5월부터 시작한 컨설팅이 9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컨설팅은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같은 마을·지역공동체사업의 관리 및 경영을 책임지는 주민주도, 주민 책임 사업조직의 운영을 주요 사안으로 두고 진행하였다.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의 마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9년 1월 인가를 받은 전의면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경영계획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사업종료 후 단기(3년), 중기(6년), 장기(11년)로 나누어 시간적, 마을공동체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공간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인 컨설팅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표 4-1]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의 단계별 발전 전략 및 목표

단계		사업시간	사업공간	전략적 Mission	핵심 목표
단기	3개년	2020년 ~2022년	전의면 중심지	전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이 책임지고 운영	**수탁 자조 운영주체** <전의사회적협동조합>
중기	6개년	2023년 ~2025년	전의면 일원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의 자립과 자생력을 확보	**독립 자생 사업주체** <전의사회적협동조합>
장기	11개년	2026년 ~2030년	전의면 전체	전의면 마을·지역공동체사업을 <전의사회적협동조합>이 기획, 관리, 운영 총괄	**민간 자치 지원주체** <전의사회적협동조합>

컨설팅 사후관리 측면에서 실무적인 논의와 수정·검토가 추가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추후 협동조합의 주요 활동 장소가 될 전의홍보관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에 많은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

❍ 추진위원회 정기회의

8월 6일, 20일 추진위원회 정기회의를 전의문화센터 3층에서 진행하였다. 회의 안건으로는 경관협정의 실무적 논의를 진행했다.

❍ 브랜드개발

브랜드개발 업체(세종아이콘)와 주민 자문위원은 8월 6일, 23일 전의면 문화센터 3층에서 디자인 시안 제시 및 소개, 주민자문위원 의견청취 등 회의를 진행했다.

❍ 홈페이지구축

홈페이지구축 업체(이음소프트)와 주민 자문위원은 8월 1일, 13일 전의면 문화센터 3층에서 홈페이지 사이트 맵 구성 및 주민자문위원 의견청취 등 회의를 진행했다..

주민기자 박종화

아이들 세상

전의 도래샘 작은도서관 새단장

전의 도래샘 작은도서관이 지난 8월 8일 새단장하여 재개관했다.

2008년 9월 8일 개관한 이래 11년만에 새롭게 리모델링하여 주민에게 더 쾌적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번 공사는 국비 70%를 지원받아 총 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된 냉난방시설과 조명시설 교체, 부족한 서가와 책상 등을 확충하고 도배, 장판, 자동문, 도서 도난방지 시스템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 전의면에 산뜻하고 쾌적한 독서,도서열람 환경과 생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생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작은도서관으로 재탄생 되었다.

현재 1만 2천여권의 장서를 보유,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전의주민과 더불어 세종 신도시 주민까지 많은 도서관 이용이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도서관 개관 일시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10:00~18:00, 토요일 10:00~13:00까지 운행한다.

9월 21일에는 또 하나의 전의 축제 '책잔치 한마당'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공연 및 프로그램은 풍선아트, 염색체험, 손바닥찍기, , 헤어핀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붓글씨체험, 전의어린이집 부스, 삼행시, 미니장터, 3D펜, 먹거리, 2019년 9월 2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주민기자 이미경

"2019년 전의향교 추계석전대제"

석전대제는 중요무형문화제 제85호로 공자를 비롯한 선성(先聖)과 선현(先賢)들에게 제사 지내는 의식이다.

전의향교에서는 2019년 9월 7일(음력 첫정일) 대성전에서 전의유림주관으로 추계석전대제를 봉행한다.

석전대제는 모든 유교적 제사 의식의 전범(典範)이며, 가장 규모가 큰 제사이다.

198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5호로 지정되었으며, 다섯 명의 헌관(獻官: 위패 앞에 잔을 올리는 제관)과 집례(執禮: 진행을 담당하는 제관), 대축(大祝: 제사의 축문을 읽는 제관)을 중심으로 여러 명의 집사가 참여하여 성대하게 지낸다.

춘계석전대제는 음력 2월 첫정일에, 추계석전대제는 음력 8월 첫 정일에 봉행한다.

춘계석전대제의 헌관으로 초헌관에 전의면장, 아헌관에 전동면장, 종헌관에 소정면장이 한다. 추계석전대제의 헌관으로는 초헌관에 세종시장, 아헌관에 세종시교육감, 종헌관으로 세종시경찰청장이 한다.

서퍼터즈 윤은실

기관 단체

2019년 제7회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금사리별밤음악회

세종시 시민들에게 청정 농촌마을의 자연자원 생태를 활용하여 전래놀이와 농촌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및 생태환경캠패인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문화로 교류하고자함. 참여자들에게 지역의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박물관 관람과 별자리특강을 통하여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이 함께 교류하고 소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전의면에서 활동하는 청년음악동아리 전의블루스 회원들이 공연을 하고 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문화체험을 통하여지역을 알리고 지역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

□ **사업주체** : 세종시 전의면 금사리 마을주민회
□ **사업주관** : 세종시마을기업(주)전의를디자인하는하는사람들
□ **참가대상** :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누구나
□ **행사시간** : 2019년 9월 21일 16:00 ~ 21:00
□ **행사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민속박물관 앞마당
□ **협　　조**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세종어린이옹호센터, 세종경찰서, 전의향교, 전의사회적협동조합, 세종시무형문화재제1호전의궁인(주장응) 세종시립민속박물관, 가온사랑어린이집, 세종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서퍼터즈 윤은실

전의면마을계획단 둥그나무공동체

전의면 둥구나무 마을공동체는 6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다. 1차워크숍은 마을계획 이해라는 주제로 마을계획 설명과 규칙 정하기 참여자 역할분담과 살고 싶은 마을 생각 나누기로 시작했다. 2차워크숍은 자원 조사로 자원조사 이해와 실천 방법 동네 라운딩과 주민의견 조사이다. 3차워크숍은 향교산 공원정비로 마을문제 정의와 해결과제의 내용으로 역량교육을 받았다.

4 차워크숍은 마을의제 발굴로 의제검증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다.

5차워크숍은 마을계획 수립으로 마을문제 선정과 해결방안, 마을계획과 추진경과 주민들과 공유 및 마을계획서 작성이다.

6차워크숍은 자체 모니터링과 차후 여정지도이다. 마을계획단장은 세종시조경수영농조합 박관응대표이사를 단장으로 구성되었으며 향교산의 공원화 사업으로 산림을 조성하여 울창한 숲의 형태를 이루게 하여 주민의 휴식공간과 자연 교육학습장을 만들 계획이다.

이에 진입로와 산책로를 조성하여 관광자원으로 주민들의 수익창출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숲 체험공간과 자연 학습장소로도 좋다. 향교와 연계한 역사교육과 예절 교육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본다.

주민기자 유옥자

LED 전등 무상 교체 자원사업

2019년 8월 22일 세종시사회복지 모금회(사랑의 열매)에서 독고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어려운 열 15가정에 노후 된 전등을 최신식 LED 전등으로 교체하고 리모컨 조작 시스템을 설치하여 사회방법을 알려드렸다

어두웠던 가정이 환한 빛으로 바뀌어 어려운 이웃들의 그늘진 마음도 환한 빛으로 밝아지길 기대한다.

전의면, 읍면동 종합평가서 최우수 기관 선정

22개 평가지표서 고른 점수…107.12점으로 최고득점 획득 -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면장 이은일)이 2019년 상반기 읍·면·동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주민기자 김은미

“8~11월 물좋은 주말장터 문화행사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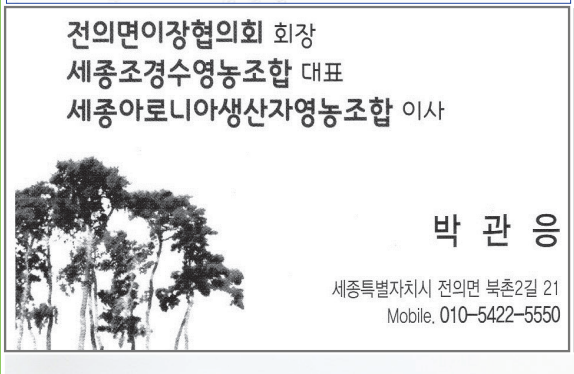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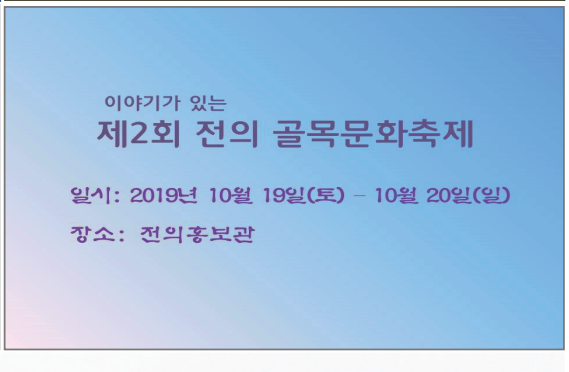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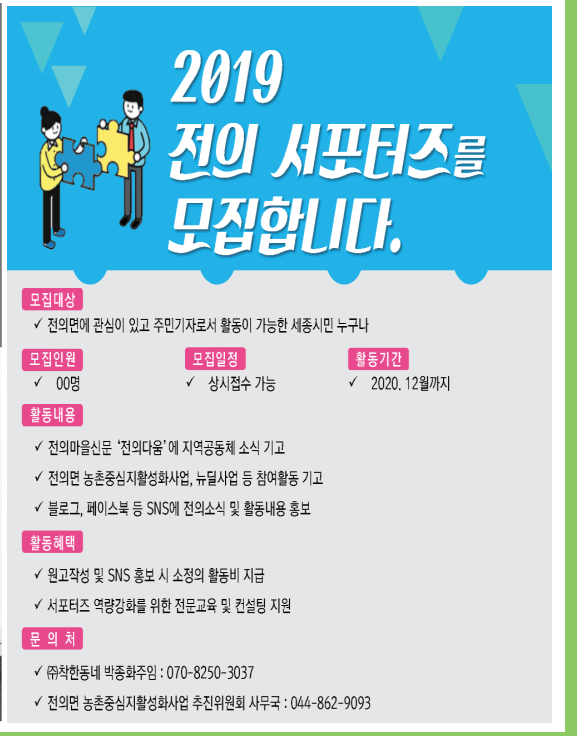
8월17일 18일 시장행사를 했다. 전의 상인들은 한 사람도 없었고 외부상인들이 차려놓은 점포들만 있다. 시장이 썰렁하다. 우리 전의 상인들이 함께 협조하여 시장활성화가 되길 바란다.

전의왕의물 시장 좌판부스에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가 많이 나왔다. 아직 홍보가 덜 되었는지 주민들 참여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

다음 행사 때는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 본다.

서퍼터즈 이영희, 장미화

9월 일정 소식지 광고

9 September

일 SUN	월 MON	화 TUE	수 WED	목 THU	금 FRI	토 SAT
1	2	3 ·세종시 전의면SW 업무회의 – 14시	4 ·어린이마을학교 – 1-4교시(전의초 4학년1,2반) – 쿠키만들기(이정언 강사)	5	6 ·홈페이지구축 4차회의 – 14시 (전의면문화센터) ·이장협의회	7
8 8.10	9 ·주민제안공모사업 – 선정팀 정산모니터링·현황회의 – 13시30분 (전의느티나무)	10 ·추진위원 정기회의 – 10시 (전의면문화센터) ·축제추진회의 현지답사 – 14시 (아산봉세리)	11 ·어린이마을학교 – 1-4교시(전의초 3학년1,2반) – 쿠키만들기(성수은 강사)	12	13 추석 8.15	14
15	16	17 ·세종시 전의면SW 업무회의 – 14시	18	19	20	21 · 전의도래샘작은도서관책잔치 한마당 · 왕의물 축제 – 아산시 교향악단 – 장터보물찾기
22	23 8.25 ·PM단 회의 – 17시 (전의홍보체험관)	24 ·추진위원 정기회의 – 10시 (전의면문화센터)	25	26	27	28 8.30 · 왕의물 축제 – 재즈피아니스트 민경인 – 와인시음회
29 9.1	30	1	2	3	4	5